

CONTENTS

4	발간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갑식	16	힐링 북스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난도질당한 마음이 봉합될 수 있을까
5	축사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20	스마일센터에서 하는 일 PTSD가 무엇인가요? PTSD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6	스마일 칼럼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그들만의 몫인가?	24	따뜻한 법률 상담소 범죄피해자를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
8	우리센터를 소개합니다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의정부스마일센터	28	스마일센터 소식 스마일 가득한 날
12	미소가 아름다운 그대 우수지원 사례 대전스마일센터	38	스마일센터 이용 가이드
14	힐링 아트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39	주소록

경청과 소통으로 다시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강력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전문기관으로 스마일센터가 최초로 문을 연지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전국에 13개 스마일센터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 전국 스마일센터의 통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괄지원단을 발족했고 이번에 스마일센터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지원에 15년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가 함께 피해자의 한 가족으로 열정과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피해자지원은 사람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므로 늘 경청과 소통의 마음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지난 시간을 겸허하게 진단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근간 환경 여건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많은 기관에서 범죄피해자지원이 이슈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에 대한 참여는 일견 바람직하나 피해자지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조직과 재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전제되어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의 도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피해자지원이라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도 많지만 청춘의 마음으로 건강한 거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센터를 알리고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이해를 위해 출발하는 간행물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갑식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약 1,000건의 살인범죄, 300,000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강력사건은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회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전쟁 생존자들이 겪는 고통보다 적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기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스마일센터는 이처럼 강력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입니다.

그동안 전국 열세 개 스마일센터가 1만 여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임시주거지원·법률지원 등 총 20만 건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는 애써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일센터 직원은 물론 우리 모두, 피해자들의 보이지 않는 아픔까지 찾아 공감하고,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마일센터 소식지로 이번에 창간되는 ‘다시웃기’가 범죄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간행물을 읽으시는 모든 이들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잘 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그들만의 몫인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 광주스마일센터장 윤진상

우리는 살아가며 자신이 처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마음이 분하고 답답한 경우를 누구나 경험한다. 그 사연도 다양하다.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큼 심히 억울한 이들도 없을 것이다.



어느 범죄피해자의 아버지가 울부짖는다.
“내 아이를 죽인 놈은 겨우 징역형 8년을 선고 받았다.
그 놈은 이 추운 겨울에도 감방에서 편하게 삼시세끼를 먹고 지낸다.
난 내 아이가 죽은 이후 내 일을 할 수가 없다. 가정도 풍비박산 났다.
차가운 땅에 묻힌 아이를 생각하면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하지 못하면 내가 그 놈을 단죄한다.”
누구를 향한 절규인가.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와 재산 손실의 정도는 끔찍하고 엄청나다. 우리 사회는 그러한 가시적 피해에 경악하고 분노하며, 범죄자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수위도 대체로 그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신체와 재물 손상에 비해 더 심각하고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17년부터 형사절차에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회복을 위한 사회의 관심과 실질적 지원은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범죄 자체의 충격과 함께 덮쳐오는 정신적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게다가 피해자는 법적 처리를 위한 조사와 증언 과정에서 끔찍한 범죄 상황을 재경험하도록 강요 받는다. 또한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 사건처리의 더딘 진행과 가해자에 내려지는 형량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이 모든 고통이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 자신감, 소속감, 타인과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등 삶의 심리적 기반과 자원이 점차 붕괴되고 소멸된다.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행복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고립되어 살아간다.

우리 사회는 그간 범죄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그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의 보장은 물론 사회복귀지원 등의 처우를 개선시키려 꾸준히 노력해 왔다. 반면에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무너진 삶을 복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초라하다. 현재 각 검찰청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구조활동을 확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예산은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지원 및 신체피해에 대한 지원 등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에 대응하느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여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범죄인과 피해자의 인권과 처우는 균형을 유지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치유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3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이는 범죄인을 위한 교정, 교화가 목적인 국가시설의 규모 및 예산과 비교하면 조족지혈도 아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역의 다양한 복지단체와 유관기관들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에서 억울한 범죄피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들이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사회에서 외면 받고 이들이 고립된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야만적 사회로 퇴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쁨과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과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한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 빨리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아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범죄피해에 대한 진정한 회복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웃음을 되찾는 그날까지 ‘스마일센터’가 앞장서고 중심이 되어 최선을 다해가길 바란다.

서울동부 스마일센터



푸릇푸릇한 풀이 싱그럽게 자란 풍납토성을 따라가다 보면 조용하고 한적한 거리 끝에 자리한 ‘서울동부스마일센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김태경 센터장(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이 따뜻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아주었다. 2010년 7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법무부는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가장 먼저 서울동부스마일센터가 개소하였다. 현재는 센터장 외 3명의 임상심리전문가(부센터장 포함)와 3명의 사회복지사, 2명의 행정요원과 1명의 보안요원이 서울동부스마일센터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센터장으로서 처음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업무를 시작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김태경 센터장은 “오랜 기간 피해자지원업무를 하면서 성취감이나 자긍심, 보람에도 불구하고 치료자로서 소진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 서울동부스마일센터의 운영을 제안받았을 때도 쉽게 승낙할 수가 없었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어 센터장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어쩌면 제가 지원했던 범죄피해자들은 저를 임상가로서 성장하게 해준 스승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소진된다 느껴도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협동이 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스마일센터가 최초로 설립된 스마일센터인 만큼 그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지 묻자 김태경 센터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연대감, 공동체 의식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래된 멤버들이 새로운 멤버와 융화가 되고, 서로 소통하며 협업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다학제적 접근을 하는 업무의 특성과 맞아떨어지게 팀 간의 협업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점, 직원끼리 서로 지지해주며 소통하는 것, 서울동부스마일센터만의 특징이자 자랑할 점이에요.”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 긴급한 사례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중간중간 들려오는 심각한 범죄 이야기에 취재진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일쑤였다. 이렇듯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전해 듣게 되면 종사자들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 피해자들의 힘든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면, 대리외상은 불가피한 경험이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직원들끼리 지지해주는 것,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위안을 통해 해소하고 있어요. 센터 내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지요.” 약간의 걱정을 드러내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센터장의 모습에서 직원들에 대한 믿음을 읽을 수 있었다.

글. 최가영

심리지원팀장을 맡은 이영은 임상심리전문가는 “심리치료사로서 한계를 느끼게 될 때 가장 힘들어요. 심각한 범죄피해나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에게도 많은 심리적 부담감과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요.”라고 말하며 힘든 점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내 종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 있어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감사하다, 고맙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돼요.”

치료자로서 힘들 때, 소진되는 것을 느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묻자 “동료들, 특히 심리지원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꿈 작업처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도 같이 해요. 이런 게 심리치료사로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이영은 팀장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사례관리와 여러 자원연계를 도맡아 하고 있는 사례지원팀. 일반적인 심리치료 기관과는 차별되는 스마일센터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례지원 업무이다. 전보라 사회복지사는 사례지원팀 자량을 해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 선생님들은 다 경력이 많은 편이에요. 다방면에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모여있죠. 그렇다 보니 저희는 아이디어 회의도 정말 빨리 끝난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유가족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비채(비우고 채우는) 여행’이 저희 서울동부스마일센터의 독특한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이번 비채 여행은 센터장님이 던져주신 아이디어를 사례지원팀에서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강릉 기차여행’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한 참가자분께서는 여행이라는 말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셨어요. 저희가 열심히 설득해서 같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콧바람도 쐬고 밖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시더라구요. 그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스마일센터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많은 애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전보라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스마일센터는 매력은 무엇일까?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부터 노인, 정신장애인까지 정말 다양한 대상자가 존재해요.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나 다른 생활 조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라면 누구든, 나이나 사회적 지위, 경

제적 상태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 곳이지요. 누군가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 지원(심리치료)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께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따르는 보람이 있는 곳이에요. ‘진짜 사례관리를 하고 싶다면!’ 스마일센터로 오세요! 스마일센터처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곳도 드물 거예요.”

한편 김지윤 사회복지사는 “사례지원을 위해서는 내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세히 알아야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담당하는 대상자의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기도 하고, 잠깐이지만 ‘나도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라며 힘든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자신만의 비법을 알려주었다.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집에서 가족들과 치킨 한 마리 배달시켜 먹으면서 SF영화 보기예요. 스트레스 날리는 데에는 제격이거든요!”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피해자지원업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스마일센터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김태경 센터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초창기에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중점이었다면, 지금은 지원 대상이 광범위해졌어요. 대상자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서비스의 종류와 양, 그리고 질적 측면의 균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취재진은 서울동부스마일센터가 최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기에 이토록 많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화기애애하고 활기찬 분위기, 센터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이들의 협동과 신뢰가 결국 피해자 지원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해졌다.

“곁에서 함께 있어 드리겠습니다.
힘드시면 제 어깨에 기대셔도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종사자들을 보며
앞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시 웃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

의정부 스마일센터

글. 이혜린



늦은 오후 설레는 마음으로 의정부스마일센터로 향했다. 두 번째 방문이어서 낯설지는 않았지만, 취재라는 업무상 긴장이 되기도 하였다. 아담한 건물에 들어서자 이경욱 의정부스마일센터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이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었고 사무실 분위기도 화기애애하여 어느새 긴장감이 풀어지고 취재하는 내내 즐거웠다.

의정부스마일센터의 소개를 부탁하자 이경욱 센터장은 “우리 직원들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병원에서만 근무하다가 스마일센터에 오니 조직의 일원이자 동료로서 일을 하는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엄격한 상하관계보다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직장동료와 같은 느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사무실 분위

기에서도 정말로 센터장님과 직원들의 친근감과 끈끈한 동료애가 느껴졌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및 서울동부스마일센터에서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를 오랫동안 해왔던 임상심리전문가 윤서연 부센터장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센터장님께서 매주 개그 소재를 생각하고 출근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도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세요. 저희들도 가끔은 센터장님과 있을 때는 나이 많은 동료와 있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옥상 정원에서 티타임을 가지며 회의를 하고 사다리타기로 간식을 사먹는 등 재밌는 분위기를 유도하시죠. 그렇다고 센터장님이 마냥 웃음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건 아니예요. 개소 초반에는 센터장님 주도 하에 9주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상 트레이닝을 받고 많이 배웠었죠.”

이쯤에서 센터장을 알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에는 병원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법무부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치료해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으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하는 이경욱 센터장의 얼굴에는 온화하지만 자신있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개소한지 1년 남짓한 의정부스마일센터이지만,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는지 질문을 하자, 센터장은 생생하게 기억에 나는 분이 있다고 하였다. “협박사건으로 의뢰된 분이었는데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려 하여 대중교통 대신 항상 택시를 타고 다니고 치료 중에도 모자를 쓰고 있어서 한참을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심리적인 개입을 해왔어요. 그런데 회기가 지날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시더니 어느 날에는 우리들한테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재 자신의 삶을 사는 게 행복하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모두가 정말 감동을 받았고 보람을 많이 느꼈던 사례였죠.” 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감동이 전해질 정도였다. 덧붙이자면, 이 내담자가 최근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에 당선 되었다고 한다.

현재 스마일센터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센터와는 다른 의정부스마일센터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스마일센터의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점에 대해서 의정부스마일센터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며 우리 센터만의 특화사업을 찾아가고 있어요. 또 유관기관과 팀을 이뤄서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단순히 네트워크의 개념을 넘어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말처럼 쉽지는 않을 일이지만 범죄피해자들이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내담자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 워크샵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일반인들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관련된 교육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의정부스마일센터 직원들이 생각하는 스마일센터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질문과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대답이 흘러나왔다. 심리지원팀 임상심리전문가 박지혜 · 이혜림 선생은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높은 것을 매력으로 꼽았다.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생각해볼 때, 병원 장면에서는 심리치료

보다는 심리평가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심리검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나서게 되면 환자의 증상 경과나 치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알게 되고 따라서 환자에 대한 이해나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스마일센터에서는 치료자가 내담자 상태를 고려하여 심리치료와 심리평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내담자와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치료 전후 경과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박지혜 선생은 치료자로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일센터를 선택했다고 한다.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내담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내담자들이 가진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심리전문가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사례지원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김용주 선생과 행정지원팀 한제희 선생은 편안한 근무환경과 가족 같은 분위기를 꼽았다. 1년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를 묻자 “전국 센터 중에서 제일 늦둥이 센터지만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특히나 사례지원팀은 저밖에 없어서 고충이 많았는데 모든 내담자들이 범죄피해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스마일센터에서 일하기를 잘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또 힘들 때마다 센터장님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시니 그것도 힘이 되더라고요.”

의정부스마일센터 직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갑자기 10월 19일 인천스마일센터 주최 ‘트라우마와 명상’ 교육에서 이경욱 센터장이 강연한 자애명상(loving-kindnessmeditation) 내용이 생각났다. “내가 평화롭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우리 모두가 평화롭기를.”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따뜻하게 인터뷰가 마무리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다.

우수지원 사례 대전스마일센터



저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해외여행을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어학 공부를 위해 이어폰을 꽂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던 바로 그 때, 느닷없이 날아든 주먹에 저는 그대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했지만 상대는 몸집이 큰 세 명의 남성이었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묻지마 폭행’ 사건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몸의 여러 곳에 상해를 입고 고막까지 찢어지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지만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은 이제 고통의 길이 되었습니다. 불안함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온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가 하면,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자신의 눈 앞으로 날아오던 주먹과 무차별적으로 당하던 발길질 장면이 불쑥불쑥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의 삶이 하루 아침에 고통의 연속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스마일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만 같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가 없었으며 수시로 호흡이 가빠지는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심리검사를 통해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서 스마일센터의 심리치료 선생님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스마일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심리평가를 통해 저의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치료 계획을 세워나갔으며, 제가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스케줄 관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잃었던 웃음을 차츰 되찾아갔고, 퓨전난타, 핸드벨, 영화관람 등 집단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며 사건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치료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엔 폭행 사건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어 심리적인 불편감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마일센터 연말 행사에서 그동안 자신이 참여했던 집단 프로그램에서의 작품도 전시하고 퓨전난타와 핸드벨 실력도 발휘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던 대학 밴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작은 공연회를 멋지게 꾸며 참석했던 다른 많은 피해자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학교에 복학하였고 열심히 준비해왔던 노력의 결과로 해외 교환학생의 기회를 얻게 되어 현재 외국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미선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연구원

“아무도 꽃을 보지 않는다. 정말이다.
너무 작아서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고, 무언가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

위의 문구는 미국의 여성화가 조지아 오키프(1887-1986)가 남긴 명언이다. “MOTHER OF AMERICAN MODERNISM(미국 모더니즘의 어머니)”로 칭송받기도 한 그녀는 자연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으로도 유명한 화가였다.

이 글을 접했던 순간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하였다. ‘나는 그 동안 얼마나 수많은 꽃들을 지나쳤는가. 흐드러지게 핀 길가의 꽃을 보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가?’ 하고 말이다. 대답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NO’ 였다.

조지아 오키프 화가의 작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은 모두 꽃을 주제로 하였다. 꽃 이외에도 동물의 유골, 사막, 자연의 풍경들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있긴 하다. 그녀는 약 200점의 꽃 그림을 완성하였고, 1920년대 중반에는 확대경을 통해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큰 규모의 확대된 꽃 작품을 작업하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그녀가 꽃의 일부분만을 확대해서 화지에 가득 차게 그린 이유로는 다른 화

가들과 차별성을 이루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다.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의 생각대로. 거대한 꽃 작품은 대중들에게 예술 작품으로서의 존재를 부각시키기에 분명했고, 미국인들은 열광했다.

그녀는 훌륭한 예술적 기교와 치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색, 모양, 빛의 미묘한 뉘앙스 등을 세밀하게 화폭에 담아냈다. 그녀의 삶의 터전과 경험들을 토대로 한 작품들은 독자들을 매료시키기 충분했고, 평생 꽃과 자연을 주제로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그녀는 자연물을 통해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8세에 생을 마감한 그녀는 화가로서의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 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예술가로서 대중에 뇌리에 남아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

조지아 오키프의 말처럼, 우리는 참 바쁘게, 그리고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그러하지 않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그렇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은 미처 푸른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버텨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이 세상에 우리는 짧은 여행을 온 것이므로
잠시만이라도 멈춰 서서 길가에 핀 꽃향기를
맡아보는 건 어떨까.

① 화이트 아이리스 No. 7, 1957. Georgia O'Keeffe

「화이트 아이리스(WHITE IRIS) NO. 7」 작품을 잠시 감상해보면, 아름다운 꽃이 화면에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눈부시게 하얀 꽃잎은 섹노란 꽃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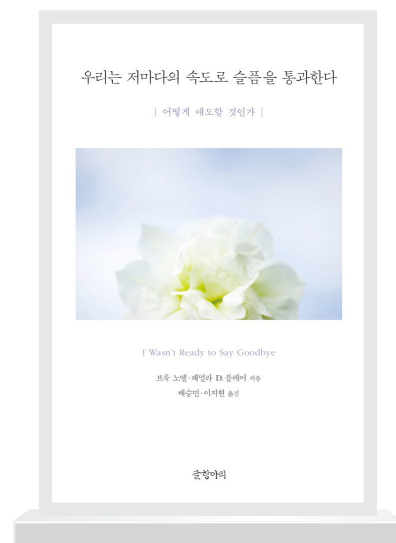
조지아 오키프는 확대된 꽃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꽃은 너무 작아서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거대한 꽃을 그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거대함에 놀라서 찬찬히 제대로 꽃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② 분홍 톨립, 1926. Georgia O'Keeffe

③ 구름위의 하늘, 1963. Georgia O'Keeffe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역자 소개 : 인천스마일센터장 배승민,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부단장 이지현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서평 | 브룩 노엘 · 패멀라 블레어 지음 | 배승민 · 이지현 옮김 | 글항아리

최근의 두 가지 죽음을 떠올린다. 한 달 전쯤 회사 후배의 아버지는 뇌종양을 앓던 중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부부는 추어탕을 먹으러 가기로 했고, 아내는 잠시 목욕탕에 다녀오겠다고 한 터였다. 후배는 근무 중 급보를 받아 상을 치렀고 애도 기간은 보름밖에 갖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다. 고인은 유언 한마디 없었고, 자살인 까닭에 두 모녀는 슬픔을 삼키며 경찰서 조서부터 작성해야 했다.

우리 회사엔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어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도 꽤 있다. 후배 아버지의 사고가 있기 하루 전, 인터넷 메시지로 한 부서 직원의 장례 알림이 도착했다. 어제까지 출근하던 그녀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스스로 삶을 마감했고, 부모는 직원들이 장례식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 하셨다. 나는 그녀와 말 한번 나눠보지 못한 사이지만 웬지 모르게 죄책감에 휩싸였다. 어쩌면 우리 직원 모두 지인의 죽음을 겪는 이들은 먼저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런 애도하는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위로를 제대로 못해 자책한다. 한 사람의 죽음은 자책의 연쇄 고리를 낳는다.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는 그래서 값지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겪은 사람과 애도 중에 있는 그를 지켜보는 우리 모두 충분히 저마다의 속도로 슬퍼하는 게 필요하며, 일상을 되찾는 것은 한발 한발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애도엔 지름길이 없고, 우리는 ‘회복탄력성’ 같은 그럴듯한 말을 되새기며 눈물을 닦지 않아도 된다. “애도의 형태와 깊이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오로지 애도에만 집중할 것”

우리 사회는 애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마저 배워야 하는 일이 되었고, 이 책은 애도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이 슬픔은 어떻게 위로하면 되는지 일러준다. “일상으로 돌아가요.”, “1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많이 나아졌을 거야.”라는 말은 금물이다. 상실을 겪은 이와 겪어보지 않은 이는 커다란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전혀 다른 존재다. 그 간극은 어쩌면 좁혀지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들 곁에 있어주고, 그들의 일상사 처리를 도우면서 애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이 책은 알려준다. 때론 유가족의 아이를 보살펴주고, 그들의 공과금 납부를 대신 해주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게 그들의 삶을 지탱시켜줄 것이다. ‘당신에게 다다가고 싶지만 너무 비탄에 빠져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와 당신의 관계는 영원히 깨져버릴 수도 있다.

가까운 친구가 죽었다면, “친구 삶의 일부를 가져와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당신 속에 남아 있게 된다. 남편이나 아내를 급작스럽게 잃었다면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정의하고 또 정의하는 일에 직면하게 된다. 배우자끼리 너무 친밀한 삶을 살아왔다면 애도를 깊숙이 통과한 후 “그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이 책은 현실적으로 조언한다.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뒤 후쿠시마 지역과 그 외 지역의 많은 일본인은 접근금지 구역인 후쿠

시마를 찾아 떠도는 혼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매년 치러왔다. 권헌익 교수의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역시 죽은 이를 사회적으로 제대로 애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짊어지게 될 역사적 부담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다. 혼들은 주변을 계속 서성이게 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애도 행위에 있어 취약한 사회이고, 그것은 개인의 집으로 떠넘겨져 어느덧 사회적 대사고가 발생하면 모두들 낮은 우울증의 늪을 알아서 건너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닌 존재다. 그러니 마음이 무거워져야 할 의무에서 너무 빨리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건 그 존재의 의미를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삭제하는 일이다.

이 책은 상실을 대하는 우리가 언젠가 황폐화된 죽음의 경험에서 삶으로 건너올 수 있다고 위로하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은 ‘재건’ 작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죽음’이 아닌 ‘삶’에 초점을 맞추도록 부드럽게 촉구한다.

난도질당한 마음이 봉합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파커 J.파머 지음 | 김찬호 · 정하린 옮김 | 글항아리

미국의 저명한 사회운동가이자 멘토로 추앙받는 파커 파머는 40대 이후 우울증의 깊은 터널을 세 차례나 지나왔다. 원인은 안팎에 다 있었다. 마취제 없이 인생의 작은 죽음들을 맞닥뜨려야 했고, 한때 의미를 지녔던 신념들은 빛이 바랬다. 미국 정치의 무심한 상대주의, 정신을 쪼먹는 냉소주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 그러던 중 2001년 9.11 테러가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는 방구석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되었다.

몇 달 동안 블라인드를 내리고 폐쇄된 방에 머무르자, 친구가 찾아왔다. “외출 좀 하지 그래? 바깥에 나가 햇볕을 쬐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야.” 파커는 대답했다. “난 나갈 수가 없어. 세상이 칼로 가득 찬 느낌이야.”

인간의 마음은 강철이 아니다. 주변을 보면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밝다’ 싶은 이들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그들이 드리워진 경우는 의외로 많다. 약해진 인간이 맞닥뜨리는 내·외부에서 들끓는 일들은 온전히 외상으로 남는다. 파머는 정신이 너무 약해져서 사소한 만남조차 위험한 것으로 느꼈다. 정치 뉴스들을 듣고 있으면 자신은 이 세상에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느껴졌다. 삶은 점점 더 위험천만한 것으로 다가왔고, 나에게 회복탄력성 따위는 없다고 여겨졌다.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의 칼날에 난도질당하게 몸을 내버려두었다.

2011년 1월 8일. 이날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지 거의 5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애리조나주 투손의 한 슈퍼마켓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쏘아 6명을 죽이고, 1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들은 애리조나의 제8선거구에서 뽑힌 하원의원 가브리엘 기퍼즈가 후원하는 “당신의 동네에서 의회를”이란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사망자가 운데는 학교에서 학생 자치위원으로 선출되어 민주주의에 대해 더 배우고자 그 행사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모든 걸 수용하고, 살아왔던 모든
흔적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강에서
바다로 넓어지는 기분으로
파머는 말한다.

에 왔던 9살 크리스티나 테일러 그린이가 있었다. 파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민의 길로 들어서던 한 어린이의 죽음에서 현실 정치가 자아내는 연민의 실패, 공감과 존중의 결여를 발견하고선,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을 때 느꼈던 정치적 비통함을 다시 경험했다고 진술한다.

그 비통함 속에서 파머는 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정치와 시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것은 정치가 상처에 대해 무관심하며, 이로 인해 정치에 낙담한 사람들은 점점 정치세계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자신감을 상실하고, 내 요구를 담은 정치적 발언을 시도하면 다른 사람의 언어 공격에 의해 더 나쁜 일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다는 점이다.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며 파머는 ‘나 혼자만 무기력하고, 고립되어 있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던 차 정치적 행동으로 도약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해서 쓰인 책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커 J.파머 지음 | 김찬호 옮김 | 글항아리)이다.

파머는 슬픔을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에게 사막이었고, 백인 남성 엘리트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온갖 차별로 인해 얼굴색이 하얗지 않은 사람, 여성, 이민자, 육체노동자들은 그들로 방치되었다. 파머는 그런 환경에 실망해서 자기 마음 역시 황무지로 만들었고, 자아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산산조각 냈었다.



그런 트라우마를 치료한 것은 공적 서사, 즉 이야기였다. 그는 모여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치적 행동으로 나갈 발판이 된다고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도 비통한 자들이 모여 만든 ‘공적 서사’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단식투쟁 당시 이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희망 없는 한국사회에서 마음을 추출했고, 이로써 한 단계 더 올라섰다. 지난 정권 때 많은 시민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희망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파머가 여든 살이 되어 펴낸 책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다. 삶의 가장자리에 오니 얼굴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이제 나이든 저자는 너그러움을 품고 자연 속에서 시들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사회에 대해 꼭 필요한 말은 하려 하고, 쓸데없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모든 걸 수용하고, 살아왔던 모든 흔적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강에서 바다로 넓어지는 기분으로 파머는 말한다. “나는 무엇인가.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모두가 나 자신이다. 어둠으로 내려앉은 것, 빛 속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 모두 나 자신이다. 배반과 충성심, 실패와 성공 모두 나 자신이다. 나는 나의 무지이고 통찰이며, 의심이고 확신이다. 또한 나의 두려움이고 희망이다.”

PTSD가 무엇인가요?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피해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트라우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상의 문제입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초조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거나, 수면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건 이후 얼마 동안은 직장 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의 평범한 활동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개월 이내에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PTS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PTSD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생동안 한 번 이상 PTSD를 경험할 확률(평생 유병률)은 0.3%-0.6%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100명 중 1.5명이 평생 한 번 이상 PTSD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으로는 1,000명 중 5명이 PTSD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이는 서구권 국가보다 다소 낮지만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동양권 국가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사건과 연관된 생각이나 느낌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PTSD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세요.

PTSD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4가지 유형의 PTSD 증상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① 재경험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느낌이 들어요.”
트라우마와 관련된 불편한 생각들이 수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생생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을 플래시백(flashback)이라고 부릅니다. 악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상기시키는 촉발요인(trigger) 때문에 트라우마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경우 재난에 대한 뉴스를 보는 것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전 군인은 공사장의 소음을 듣고 충성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② 회피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피하고 싶어요.”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사물을 피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폭행을 당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전 군인은 주위에 사람

들이 많으면 위험하다고 느끼고 대형마트 등 붐비는 장소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늘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③ 부정적인 인지와 기분 “예전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쾌한 기분이 자주 들어요.”
트라우마 이전보다 부정적인 기분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프거나 감정이 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친구들과의 만남 등 이전에는 즐거웠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행복,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야.’, ‘나는 그 사건을 막으려고 무언가를 했어야만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④ 과각성 “자꾸만 불안하고 초조해요.”
트라우마 이후 편안히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고 초조하거나 긴장된 느낌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를 과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잠이 오지 않고, 집중이 어렵고, 주변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매사에 경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짜증이나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도 깜짝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를 과도하게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거나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등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1 트라우마 이후에 자신을 돌보기



- ❶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끔찍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세요.
- ❷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보세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❸ **차,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담배를 줄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흥분된' 상태이고, 이러한 물질은 흥분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 ❹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음악을 듣거나, 목욕을 하거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 ❺ **매일 한 가지 즐거운 활동을 시도하세요.**
- ❻ **감정을 억누르거나 막지 마세요.** 반복되는 생각, 꿈, 플래시백은 불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할 것입니다.

- 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분간 피하세요.** 이사, 이직 등 중요한 결정은 당분간 미루어 두고, 어떤 영화를 볼지, 누구와 만날지 등 작고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세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삶을 더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 ❽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혼자있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❾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글로 써보세요.**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적인 치유의 과정으로,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❿ **미디어, 다른 정보처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되 무리하게 알아보지는 마세요.** 재난이나 트라우마 현장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트라우마 이후 친구나 가족을 돕기



- ❶ **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해 왔으며, 그것을 다루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은 아이를 돌봐주거나 장을 대신 봐주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회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❷ **매스컴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세요.** 그들 대신 뉴스를 살펴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 ❸ **스스로를 돌보도록 격려하세요.**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식사, 정기적인 운동, 이완하는 시간, 커피와 술 등 자제하기 등으로 자기 돌봄을 하도록 격려하세요.
- ❹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우세요.** 매일 한 가지씩 즐거운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트라우마 사건 이전에 즐겁게 참여했던 활동이나 취미생활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❺ **성취를 인정해주세요.** 그들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 ❻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이는 경험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어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지 마세요.
- ❼ **단순히 안심시키는 말은 하지 말고, 단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요.”, “괜찮아질 거야.”와 같은 말 대신, “정말 힘든 시간이군요.”, “때론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보기가 힘들지요.”와 같은 공감하는 말을 해주세요.
- ❽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들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잠시 혼자 남겨둘 수 있지만, 매일 일정 시간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고립되거나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Q1.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이며,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트라우마를 겪은 지 2주 후에도 여전히 문제들이 지속된다면 치료자를 찾아가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치료는 대개 8-12회기로 구성되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2. PTSD 치료를 받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수년 전에 발생했더라도 치료는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PTSD 치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발전해 왔습니다. 만약 이전에 치료를 시도했었으나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다면 지금 다시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는 PTSD의 장기적인 고통으로부터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Q3.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치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다, 너무 바빠다.)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사실 PTSD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심으로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PTSD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곧바로 치료를 받는 게 더 좋습니다. 더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Q4. 기대만큼 나아진 것 같다고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호전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증상을 처리할 수 있다고 느껴지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자극을 접하게 될 때 다시 악화되기도 합니다.

* 출처: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2018).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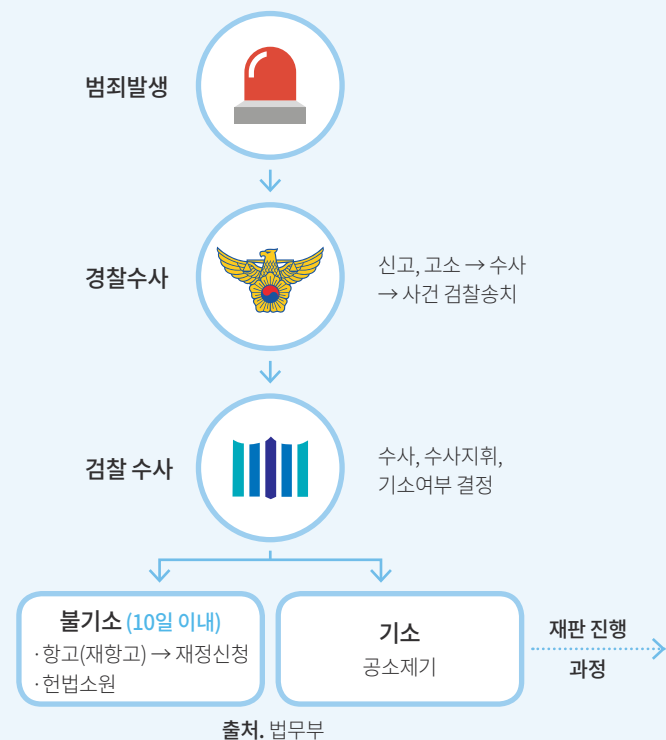
범죄피해자를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법무관 임병진

1편 수사

이 안내서는 사건의 진행 순서로 하되 사전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범죄피해자분들의 어려운 상황 속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형사소송절차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고발과 같이 범죄 신고를 받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풍문을 듣거나 신문기사를 보고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1 고소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발과 고소를 갈게 취급합니다.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족하고, 정확한 죄명까지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피해사실에 관해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특정하여야 합니다.

3 구속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를 구속영장의 기각이라고 합니다.

4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풍문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기소라는 것은 결국 법원으로 사건이 이동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다만,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겨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재판(이를 공판이라고 합니다)을 열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불기소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고 증거도 충분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되는 것이 옳지 않으니 한번 더 사건을 들여다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를 접수한 관할 고등검찰청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수사절차단계 이후인 형사재판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편 형사재판절차

먼저, 형사재판의 직접당사자는 국가와 피고인입니다. 범죄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 양 당사자가 되고 범죄피해자는 증인으로 참여하게 됨이 보통입니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말하는데, 형사재판은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그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1 보석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공판기일의 지정, 소환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고,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재판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형사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심급에서 재판 기일은 여러번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3 공판기일의 진행절차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먼저 한 후,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등의 그와 같은 진술을 모두진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되며, 이 때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증거목록에 기재된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각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여부를 밝히게 되는데, 만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서류가 있을 경우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신의 실제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어야만 비로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증거조사절차 동안 피해자는

법원의 증인신문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는 증인이 미리 피고인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요청하고 이를 판사가 인정하면 가림막 또는 피고인을 증인이 보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 후 증인에게서 증언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

재판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죄질, 범행횟수, 피해의 규모,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6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형을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7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8 공소기각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었거나 취소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필요한 요건에 흠이 있어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9 재판에 대한 불복

형사소송법은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항소장 또는 상고장은 상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재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형사재판절차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범죄피해자께서 형사재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의 문답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문제 되는 사안은 구체적인 법률적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마일 가득한 날

대상자와 함께 나들이



[대전] 희망과 만나는 우리들의 여행
(죽도 상화원 및 서해 대천항 4.20),
(덕유산 향적봉 및 무주와인동굴 10.19)

범죄피해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타인과의 교류를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을 기획하였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기분을 환기시키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동부] 힐링투어
(경기도 포천시 한과박물관 및 평강식물원 4.26)
(아쿠아리움 관람 8.21)

강력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치유를 돕기 위하여 박물관과 식물원을 관람하고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동부] 비채여행(강문해변 10.1)

유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비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강릉의 해변가를 찬찬히 돌아보며 귀한 선물과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구] 힐링캠프
(울산장생포고래박물관 및 대왕암공원 4.21)
(경주 동궁원 및 볼국사 10.13)

봄의 자연경관 및 해양생태계를 보는 체험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비슷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힘을 주고 받음으로써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서부] 봄나들이 ‘다시 해(咳)’
(경기도 남양주시 생태농장 초록향기 4.28)

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상자들 간 상호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딸기 수확 및 딸기잼 만들기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서부] 유가족 프로그램 ‘마음모아’
(화계사 10.12)

일상에서 벗어나 유가족들이 한데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서로 지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연꽃등 만들기, 점심 공양, 사찰소개, 스님과의 걷기 명상 및 차담을 하였습니다.



[부산] 템플스테이(5.18 / 10.19 부산 범어사)

강력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스마일센터가 함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염원을 담은 108배 염주 만들기, 참선수행, 등나무 숲길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주] 힐링나들이
(곡성 도림사 계곡,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5.29)

봄날의 섬진강, 계곡과 공원 등 자연 속에서의 힐링 나들이를 통하여 대상자들 간 자조모임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면서 상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치유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정부] 자연치유 힐링프로그램
(경기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5.29)

대상자들과 함께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을 걸으며 정원해설사의 설명에 따라 정원을 탐방하고 화분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자연을 통한 심리적인 치유와 정서적인 안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인천] 너나들이
(인천 중구 동화마을 및 차이나타운 6.19)

대상자들과 함께 떠나는 너나들이(너와 나의 봄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체험을 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봄따라 바람따라
(나주 황포돛배 체험 5.31)

범죄피해 대상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봄 나들이를 기획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나주를 방문하여 황포돛배 체험을 하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춘천] 가족 힐링 캠프
(춘천 꿈자람 물정원 7.31-8.1)

범죄피해자 가족들이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느끼고 힐링을 체험할 수 있었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신치유 프로그램



[서울동부] 감정조절기술훈련 집단프로그램 (4월-5월), 아로마 프로그램(1월-10월), 명상요가 프로그램(1월-10월), 미술 프로그램(1월-10월), 요리 프로그램(2월-7월)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6회기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정조절의 의미와 과정 이해하기, 상황 분석하기, 감정조절기술 및 마음챙김 훈련하기 등을 통해 감정조절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심리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동부] 추모제(6.15)

살인피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추모제(제5회)를 통해 같은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 고인이 된 가족들을 추모하고 상실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고인을 떠올리며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슬픔을 보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서부] 쿠키클래스(5월-9월), SW시네마(4월-7월), 미술치료(8월-10월), 천공예(6.20)

빵을 굽고 쿠키를 만들 때 느껴지는 향기, 직접 몸을 움직여 요리를 하는 과정,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심신안정 회복을 지원하였으며, 가족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대상자들에게 편안한 여가활동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산] 특별 프로그램(9.4)

추석을 앞두고 피해자들과 함께 꽃송편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며 오감을 사용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 심신회복 집단프로그램(1월-12월), 스마일문화프로그램(월1회)

대상자들이 직접 바느질을 하여 자수를 놓고 인형을 만들며 책꽂이나 소품상자를 만드는 목공 및 냅킨아트 공예를 체험하는 집단프로그램(주1회)을 통해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문화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인천] 유가족 집단 프로그램(7월-12월)

2018년 7월부터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유가족을 위한 쿠키 및 제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감을 활용하여 심신을 안정시키고, 유가족 간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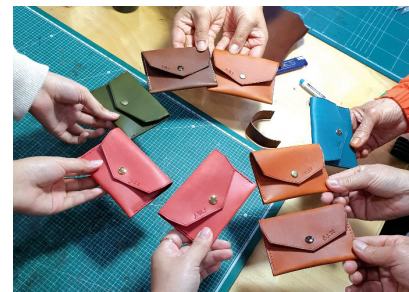
[광주] 새로나기 프로그램 : 공예, 베이킹, 건강강좌, 캘리그래피, 아로마테라피, 원예, 요가(2월-10월), 담양한과체험(4월), 문화의 날 '공감'(5월-9월)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도록 돕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법을 배우거나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문구를 캘리그래피로 써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문화의 날 '공감'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주] 특별프로그램 도예체험(8.29), 과일 식초 만들기(7.25)

특별프로그램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한 도예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손끝의 감각을 느끼고 창의력을 발휘해 그릇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하며 심신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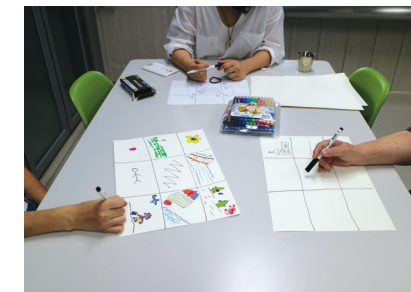
[대구] 문화예술공감놀이터(6.29), 도예활동(8.2-10), 음악치료(9.6-27), 가족공예(10.5-11.2)

개인의 트라우마로부터 사회적 트라우마까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좋은 영화이야기를 빌려 대상자에게 재미있게 스토리를 전달하고 쉽게 트라우마의 관점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감놀이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전] '마음을 깨우는 향기' 천연아로마 프로그램(2월-6월), 원예 프로그램(2월-11월), 냅킨아트 프로그램(8-11월), 도자기공예 프로그램(8.4)

천연 아로마는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 증상을 완화시키고, 긍정적 정서와 성취감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의 신체 및 정서적 상태에 따라 적합한 효능을 가진 천연아로마 오일을 선택하여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 활용하였습니다.



[춘천] 집단 미술치료(5월), 원예 프로그램(5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함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고 정서적인 지지를 나누었으며,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활용한 원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춘천] 피해자 자조모임 "Re스마일데이"(10.2)

피해자의 고립감 완화, 피해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므로써 심신을 치유할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주] 원예 프로그램(3월-8월), 공예 프로그램(6월-9월), 문화체험 프로그램(8.21-28)

다양한 원예활동을 함으로써 식물이 주는 자연 치유의 힘과 활력을 느끼고 행복감을 경험하며, 칭찬과 나눔, 위로와 수용의 과정을 통해 정서 공감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전주] 감정코칭 프로그램(9.5-11.7), 피해자 성교육프로그램(8.21-28)

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 스스로의 감정문제를 인식하고 그 상황을 이용해 올바른 감정발산 법과 표현법을 가르침으로써 범죄피해로 인해 강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덜어내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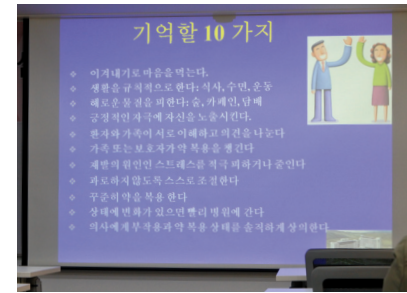
[수원] 원예 프로그램(3월-11월), 아로마 프로그램(5월-7월), 음악치료 프로그램(7월-9월), 공연 프로그램(8.17)

식물과 꽃을 기본으로 하여 포푸리, 비누꽃바구니 등 다양한 작품을 완성하고,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여 비누, 캔들, 화장품 등 각종 소품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원] 특별(명절) 프로그램(9.21)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작품(드림캐처)을 만들며 집중하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성취감 향상 및 정서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 요가 프로그램(1월-10월), 심리적 외상 후유증에 대한 약물치료 바로알기(4월)

대상자들이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매주 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이후의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약물치료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약물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 신체향상 프로그램(9.19), 정서향상 프로그램(10.17)

범죄피해로 인해 활동영역이 적은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외부로 나가 직접 호신술을 체험하고 활동 함으로써 사회와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 안정을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한 날들



[인천] 교육워크숍 '소아재난 예술치료(CIDER-ARTS)'(1.31)

재난 및 심리적 외상에 노출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안된 소아 재난 예술치료(CIDER-ARTS : Children In Disaster : Evaluation & Recovery-ARTS therapy version)에 대해 배우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강사 : 이미선(울지대학교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 연구원)



[인천] 해외연자초청워크숍 '뇌와 정신건강 : 트라우마와 대리외상'(10.12)

범죄피해 및 트라우마에 대한 보다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배우고 활용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스라엘 Esti Galili-Weisstub 교수를 초청하여 '뇌와 정신건강 : 트라우마와 대리외상 (Brain and Mental health : Trauma & Secondary Trauma)'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인천스마일센터 주최,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후원)

강사 : Esti Galili-Weisstub(이스라엘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인천] 외부교육워크숍 '트라우마와 명상'(10.19)

인천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 및 트라우마에 대한 보다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배우고 활용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트라우마와 명상'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사 : 이경옥(의정부스마일센터장,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수원] 전국스마일센터 EMDR 자문회(2.8/5.18)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EMDR :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치료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인 치료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PTSD 치료기법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일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사례 자문지도(수퍼비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 : 강남희(수원스마일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수원] 교육워크숍 '트라우마와 해리'(5.18)

트라우마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 중 하나인 '해리(dissociation)'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traumatic dissociation을 치료하기 위한 개입 방법(TFS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 : 김준기(서울EMDR트라우마센터장, 마음과마음 식이장애클리닉 - 원장, 전.인천스마일센터장), 강남희(수원스마일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구] 교육워크숍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6.1)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의 역동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해 배움으로써 스마일센터 및 유관기관에서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사 : 현진희(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활성화 워크숍
[서울동부] (5.2), [춘천] (5.3), [광주] (5.9),
[전주] (5.11), [대구] (5.14)

각 센터의 현황과 주요 지원사례 소개, 범죄피해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및 치료기법 강의,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지역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피해자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각 지역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효율적 보호 및 지원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전] 충북지방경찰청 및 피해자전담경찰관 대상 교육(6.18),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피해자보호관 대상 교육(9.17), 한국임상심리학회 소속 회원 대상 교육(10.11)

스마일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알리고 범죄피해 트라우마의 특성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심리지원의 실제>에 대해 교육하고 스마일센터를 홍보하였습니다.



[전주] 교육워크숍 ‘변증법적 행동치료(DBT)’(6.29)

트라우마 치료기법 중 하나인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에서 정서조절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연습하는 교육을 진행하였고, 스마일센터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심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강사: 최현정(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마음 대표)



[춘천] CIDER를 통한 트라우마 이해와 대리외상(7.19)

피해자의 외상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실무자의 대리외상과 소진 경험을 공유 및 회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이미선(울지대학교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연구원)



[의정부] 아동·청소년 놀이치료 사례회의 및 보호자면담 교육(8.13)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 및 보호자의 회복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회의와 보호자면담 교육을 실시하여,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고 피해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들이 치료과정에 협력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 김유숙(한스카운셀링센터 소장,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업무협약식(MOU)* [대전] 나음정신건강의학과(3.19),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7.31), [춘천]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4.12), [서울동부] 강동경찰서(6.26)**

대전스마일센터에서는 나음정신건강의학과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춘천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법률지원 강화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 홍보캠페인 ‘다링 대전지역 SPOT 행사’(5.1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삼성에스원, 대전스마일센터가 유성온천축제장에서 홍보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전주] 연합 홍보캠페인(6.14)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주 덕진경찰서와 상호 연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력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각 기관을 홍보하였습니다.



[서울동부] 송파구 복지박람회 행사(9.7)

송파구 민·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모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는 ‘2018 송파구 복지박람회’에 참여하여 스마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에 대해 잘 이해하고 범죄피해자들이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정신건강 박람회 ‘마음돌봄 어울마당’(9.11)

자살예방의날을 맞이하여 광주광역시 주최 정신건강박람회 2018 ‘마음돌봄 어울마당’에 참여하였습니다. 체험부스 운영 및 퀴즈, 드림캐처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에게 스마일센터에 대해 알리고, 행복메시지를 작성하여 서로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 기관홍보 캠페인(10.8)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의정부스마일센터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홍보를 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의정부스마일센터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대구] 정신건강축제(10.10-11)

대구광역시 주최 정신건강축제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재고하고 더불어 스마일센터의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법무부와 함께



[춘천]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2.20/5.29)

춘천스마일센터에서는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대전] 충남지방경찰청 간담회(7.17)
군부대 양성평등상담관 간담회(10.23)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13명의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스마일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협업해야 할 내용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부산] 부산광역시 표창장 수상(9.10)

부산스마일센터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여하여, 그 동안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함과 동시에 부산시 지역치안을 지켜 오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광주] 법률상담터 간담회(9.19)

광주스마일센터 주최하에 광주 및 순천지역 공익법무관, 그리고 광주권역 법률상담터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스마일센터에서 진행되는 법률지원 및 서로 간의 업무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 간담회
[대구] (2.22), [서울서부] (3.6), [전주] (3.9)
[광주] (4.11), [대전] (4.13), [수원] (4.26)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각 지역 관할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스마일센터의 사업수행조직, 업무수행체계, 주요 서비스, 의뢰절차,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단기 임시안전숙소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피해자전담경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서부] 법무부 장관 정책 현장 방문 (3.22)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점검차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안내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종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향후 스마일센터의 발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검찰청 간담회
[광주] 광주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간담회(1.17), [대전] 대전지방검찰청 간담회(4.2) [수원] 수원지검 공판검사 교육 및 간담회(4.19), [서울서부]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9.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검찰청 및 스마일센터 간 정기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스마일센터는 광주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과 함께 광주 전담지역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전스마일센터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연계 방안 및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원스마일센터는 수원지검 공판검사들을 대상으로 스마일센터 소개 및 사업 안내, 범죄피해 트라우마 및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괄] 제5회 다링(DaRing) 안심 캠페인 (6.16)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삼성 에스원 임직원 및 가족, 법무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제5회 다링 안심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에서도 캠페인에 참여하여 희망부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스마일센터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다(All)’, 원을 상징하는 ‘Ring’의 복합어입니다.



[총괄] 스마일센터 연합사례회의(7.5-6)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심도 있는 사례회의, 그리고 종사자들의 대리외상과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11개 센터가 모두 참여하여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배움과 나눔의 장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총괄] 스마일센터 종사자 전문역량개발교육 회계교육(9.7), 트라우마 심리치료 기본과정 교육(10.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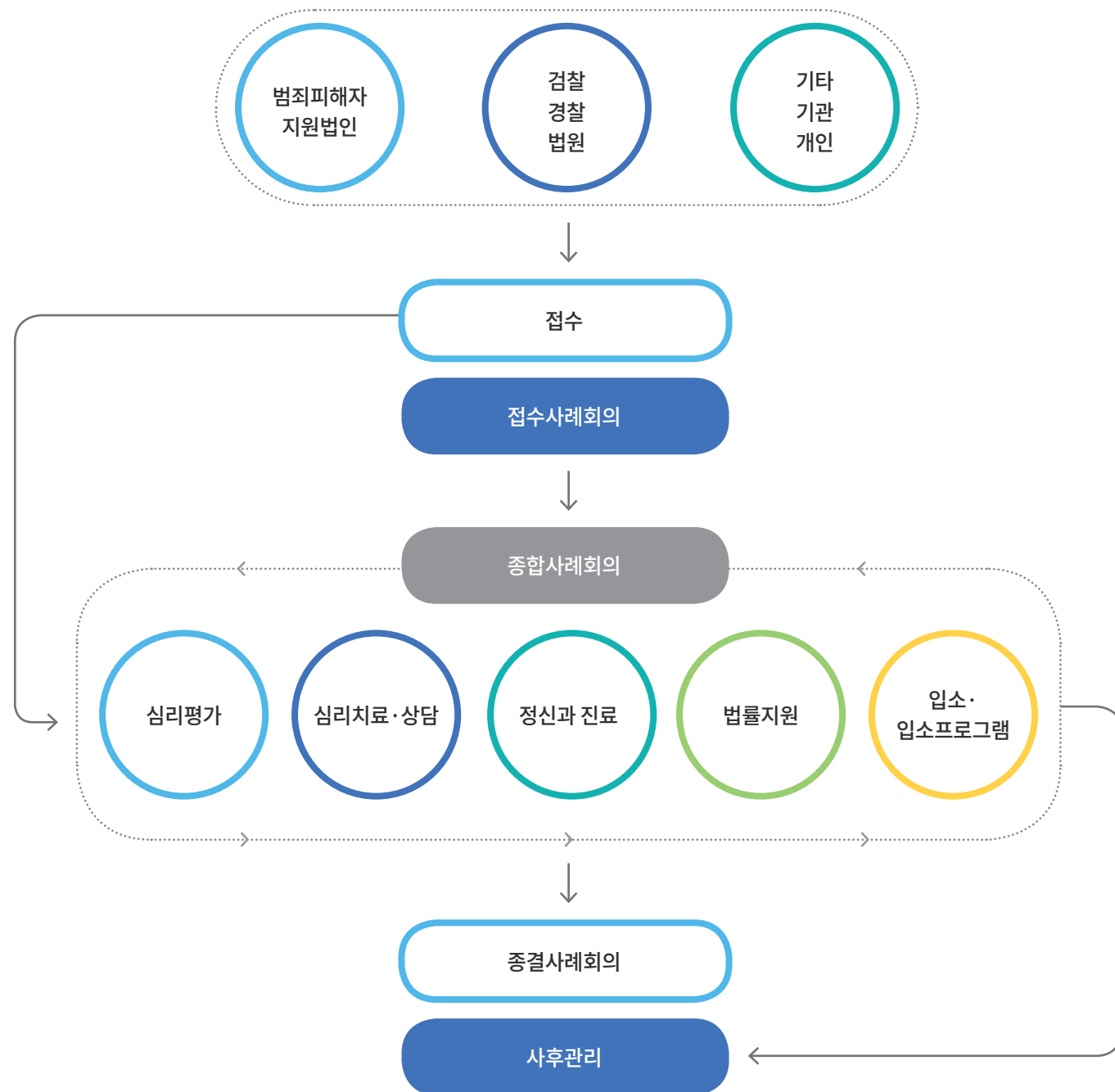
행정지원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회계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 등 활발한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리지원팀은 트라우마 심리치료의 이론에 대해 점검하고 안정화 등의 실습까지 진행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종사자 전문역량개발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괄] 제3회 스마일센터 연례심포지엄 ‘애도상담과 유가족지원’(11.12)

법무부 및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주관 하에 제3회 스마일센터 연례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애도상담과 유가족 심리지원’이라는 주제로, (전)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홍주연 교수, 고려대학교 마음건강연구소 고선규 교수, 광주스마일센터 김해숙 부센터장이 애도상담의 이론과 실제, 외상성 사별 유가족의 심리지원에 대하여 강연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가이드



주소록

The map shows the locations of Smile Centers across South Korea. Each location is marked with a pin and connected to a text box providing the center's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2018.01.)**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6 (성산동 58-6)
T. 02-333-1295
- 서울동부스마일센터(2010.07.)**
서울 송파구 풍성로22길 37 (풍납동 244-2)
T. 02-473-1295
- 서울서부스마일센터(2016.12.)**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6 (성산동 58-6)
T. 02-332-1295
- 인천스마일센터(2013.1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72 (문학동 169-13)
T. 032-433-1295
- 대전스마일센터(2014.12.)**
대전 서구 갈마로 139 (갈마동 1490)
T. 042-526-1295
- 전주스마일센터(2015.12.)**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87 (인후동2가 1577-35)
T. 063-246-1295
- 광주스마일센터(2013.11.)**
광주 동구 구성로 163 (충장로 5가 81-3)
T. 062-417-1295
- 춘천스마일센터(2015.12.)**
강원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7 (거두리 933-7)
T. 033-255-1295
- 수원스마일센터(2016.12.)**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세류동 255-3)
T. 031-235-1295
- 의정부스마일센터(2017.09.)**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78 (의정부동 205-5)
T. 031-841-1295
- 청주시마일센터(2018.12.)**
충북 청주시 청원군 1순환로 112 (울량동 2225)
T. 043-218-1295
- 대구스마일센터(2014.12.)**
대구 수성구 만촌로 148 (만촌동 427-33)
T. 053-745-1295
- 울산스마일센터(2018.12.)**
울산 중구 성안로 218 (성안동 403-6)
T. 052-707-1295
- 부산스마일센터(2012.09.)**
부산 금정구 금샘로 371 (구서2동 1026-12)
T. 051-582-1295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6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
T. 02-333-1295 F. 02-335-1295 H. www.resmile.or.kr